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전 우 영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한 및 남·북한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의 지배층과 매우 유사한 남성적인 속성을 지닌 외집단으로 지각하였던 반면, 북한 동포는 북한의 피지배층, 여성, 그리고 소녀와 비슷한 여성적인 속성을 지닌 내집단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과 북한 동포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 국민과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 남성과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지만, 남한 여성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남한의 지배층과 북한의 지배층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남·북한 고정관념 연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의 통일과 그 후에 이어졌던 동구권의 몰락은 우리로 하여금 남한과 북한도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을 유도하였다. 기존의 통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즉, 국가 단위의 구조적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통합만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성영신, 1995; 심진섭, 1995; 정진경, 1996). 국가 단위의 통합과 함께 개인들 간의 심리적인 수준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통일은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통일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독일 통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 이후 나타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구 동·서독 국민들 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이었다. Kohr(1995)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 후 동·서독 출신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일상 생활 속에서 접제한 갈등을 보였다고 한다. 동·서독 출신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불공평성과 불평등성을 지각함으로써 집단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고, 그 결과 범죄, 테러 등의 공격행동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동·서독 출신들 간의 불신과 집단간 갈등을 유발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는 상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있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전우영·이훈구, 1996, 1997; Fajardo, 1985; Sagar & Schofield, 1980), 나아가 우리 자신의 행동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Tajfel, 1970). 특히,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여성을 차별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상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상호 불신과 차별행동을 유발함으로써 두 집단의 갈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Kohr(1995)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동독의 젊은이들은 통일 전에 TV 등을 통해서 서독의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서구의 가치 체계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동·서독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한 갈등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Kohr(1995)의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통일 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 매우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면, 지금까지 상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 후에 직면하게 될 집단간 갈등의 정도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지역 갈등의 유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

고정관념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특히,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독특한 내용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Hoffman & Hurst, 1990). Eagly와 Steffen(1984)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은 우리가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

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흑백 차별이 심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죄수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원 손질이나 보수작업을 하는데 동원됐지만, 백인죄수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흑인 죄수들만이 공공장소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흑인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 흑인 죄수들이고 이들은 주로 단순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많은 범죄 행위를 한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고, 흑인들은 단순작업을 잘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Hamilton, Stroessner, & Driscoll, 1994). 즉, 흑인 죄수와 백인 죄수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 사회의 흑인과 백인 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agly와 Kite(1987)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상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도, 한 국가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국가 집단간의 접촉 시에 상대 국가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국가 집단의 성원들 간의 대면 접촉은 한 국가 내의 하위집단의 성원들 간의 대면 접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고정관념은 주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것은 그 국가 내에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지위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보다 뉴스나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그 결과 상대 국가 사람들의 눈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주로 클린턴 대통령

과 같은 정치인, 마이클 조던 같은 운동 선수,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같은 연예인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에 대한 이미지는 수상, 왕족, 작가, 예술가, 연예인들의 이미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체에 등장하는 상대국가의 사람이 자국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국 사람의 행동은 매우 특출한 자국으로 지각된다고 한다(Eagly & Kite, 1987). 이때 상대국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테러범들이 자국의 비행기를 납치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자국민들에게 상대국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상대국이 주로 납치범들의 역할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지위의 역할들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고(Bergman, 1986),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낮은 직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Kanter, 1977).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회에 존재하는 성 역할의 구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적인 노동은 주로 집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남성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가정은 사적인 일,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곳으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정진경, 1989). 즉, 일은 남성의 것으로 가정은 여성의 것으로 구분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상대 국가의 관찰자들에게 특출하게 지각되는 영향력 있는 공식적인 역할에 남성들보다 매우 적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관찰된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주로 남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상대국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상대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상대국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상대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강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유사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면, 여성도 남성과 유사하게 지각되고 국가와도 유사하게 지각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Eagly와 Kite(1987)는 28개국의 남성, 여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국가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더 유사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국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국가의 지배층의 특성이 그 국가의 고정관념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지배층의 위치는 남성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국가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국가로서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북한 내의 하위집단 중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한지를 알아보았다.

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남자 116명, 여자 54명,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만 응답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하여 총 17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만 18세에서 28세

사이였고, 평균 나이는 21.63세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Eagly와 Kite(1987)의 연구에서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18개의 성격특성(가정적인, 공격적인, 정직한, 거만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지배적인, 친절한, 자신 있는, 도움을 주는, 독립적인, 희생적인, 이기적인, 이해심이 있는, 야심적인, 우호적인, 경쟁적인, 호감이 가는, 과학적인)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성격특성들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Eagly와 Kite(198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타적이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한다. 즉, 공동체 지향적인 속성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적인, 정직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친절한, 도움을 주는, 희생적인, 이해심이 있는, 우호적인, 호감이 가는 등과 같은 특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는 것이다.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자기 주장적이고 환경을 지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한다. 즉, 주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격적인, 거만한, 지배적인, 자신 있는, 독립적인, 이기적인, 야심적인, 경쟁적인, 과학적인 등과 같은 특성들은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8개의 성격특성이 16개의 조사 대상 집단인 북한(국가로서), 북한 동포, 북한 남자 성인, 북한 여자 성인, 북한 소년, 북한 소녀, 북한 지배층, 북한 피지배층, 남한(국가로서), 남한 국민, 남한 남자 성인, 남한 여자 성인, 남한 소년, 남한 소녀, 남한 지배층, 그리고 남한 피지배층과 얼마나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결 과

우선, 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 내의

표 1. 남·북한 및 남·북한 내 하위집단에 대한 성격특성상의 평가의 평균

	남 한								북 한							
	남한 국민	남성	여성	소년	소녀	지배층	피지배층	북한 동포	남성	여성	소년	소녀	지배층	피지배층		
가정적인	2.87	3.44	2.86	4.12	2.77	3.39	2.46	3.58	2.25	3.27	2.84	3.57	2.70	3.13	2.18	3.35
공격적인	2.75	2.87	3.42	2.50	3.32	2.57	3.76	3.06	4.30	2.87	3.25	2.70	3.52	2.91	4.19	2.81
정직한	2.16	2.70	2.57	2.87	3.01	3.14	1.73	3.01	1.99	3.25	2.92	3.08	3.19	3.20	1.87	3.10
거만한	3.21	3.18	3.51	2.81	2.76	2.63	4.08	2.28	3.46	2.35	2.67	2.35	2.75	2.48	3.98	2.36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30	3.42	2.82	3.72	3.12	3.76	2.65	3.33	2.29	2.82	2.65	2.94	2.77	3.02	2.30	2.89
지배적인	3.40	3.14	3.81	2.45	2.86	2.39	4.28	2.40	4.13	2.44	3.11	2.37	2.84	2.36	4.40	2.10
친절한	2.58	2.77	2.56	3.11	2.95	3.32	2.12	2.93	2.05	2.96	2.68	2.99	2.75	2.94	2.01	2.97
자신있는	2.57	2.89	3.02	2.64	3.25	2.99	3.32	2.36	2.96	2.31	2.50	2.36	3.00	2.67	3.24	2.20
도움을 주는	2.61	2.79	2.60	3.10	2.80	3.04	2.13	2.94	1.84	2.51	2.42	2.59	2.46	2.68	1.86	2.71
독립적인	2.06	2.55	3.09	2.35	2.72	2.57	2.77	2.48	3.75	2.88	2.95	2.68	2.98	2.74	3.54	2.65
희생적인	2.13	2.46	2.51	3.31	2.43	2.82	1.73	2.83	1.90	3.04	2.82	3.25	2.68	3.01	1.92	3.09
이기적인	3.42	3.52	3.56	3.33	3.42	3.37	4.23	3.16	3.78	2.73	2.94	2.70	2.93	2.75	3.90	2.64
이해심이 있는	2.55	2.88	2.75	3.28	2.65	2.97	2.14	2.96	2.08	2.82	2.72	3.02	2.63	2.85	2.02	2.93
야심적인	2.90	3.16	3.62	2.54	3.28	2.71	3.96	2.69	4.01	2.49	2.83	2.46	3.21	2.84	3.89	2.29
우호적인	3.02	3.04	2.88	3.34	3.09	3.27	2.34	3.09	1.89	2.89	2.67	2.93	2.64	2.88	1.88	2.95
경쟁적인	3.53	3.65	3.81	3.08	3.63	3.35	3.98	3.02	3.48	2.65	2.92	2.54	3.19	2.89	3.65	2.53
호감이가는	2.73	3.05	2.71	3.19	2.97	3.34	2.02	2.87	2.10	2.97	2.70	2.94	2.79	3.03	1.82	2.95
과학적인	2.42	2.43	2.64	2.33	2.88	2.59	2.43	2.27	2.18	2.05	2.13	1.95	2.23	2.13	2.14	1.91

다른 하위집단의 고정관념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남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한 내의 어떤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 1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조사 대상자들이 16개의 남·북한 및 남·북한 내의 하위집단을 18개의 성격특성에 대해 평가한 값의 평균을 자료로 이용하여, ALSCAL 프로그램(Takane, Young, & deLeeuw, 1977)을 통한, 다차원 척도분석을 하였다.

일차원에서 사차원에 이르는 모형들을 분석한 결과를 해석의 용이성, 스트레스 값의 감소 정도, R^2 , 그리고 모델의 간명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각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와 R^2 값에 따르면, 일차원에서 이차원으로 변화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값이 감소하고 R^2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사실상 네 개의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R^2 값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 기준에 따르면, 일차원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이차원 모형이, 남·북한을 구분해 줌으로써, 일차원 모형보다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개의 차원을 지정한 결과, 표 3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조사 대상 집단별로 두 개의 차원 값이 산출되었다. 그 결과를 도표화 한 것이 그림 1이다. 산출된 도표 상의 두 개 차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각 성격특성들이 두 개의 차원 값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이해심이 있는, 공격적인, 지배적인, 그리고 야심적인 특성이 차원 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와 R^2 값

차원수	스트레스	R^2
1	.486	.439
2	.451	.469
3	.448	.482
4	.447	.490

특히, 차원 1에는 지배적인 특성이 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원 2에는 과학적인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표 3. 남·북한 및 남·북한 내 하위집단의 차원 값

	차원 1	차원 2
남한	0.0821	-0.9459
남한 국민	-0.2226	-0.8003
남한 남성	0.8493	-0.7854
남한 여성	-1.5028	-0.4036
남한 소년	0.0431	-1.2825
남한 소녀	-1.0480	-0.7843
남한 지배층	1.9869	-0.5548
남한 피지배층	-0.9302	0.0697
북한	2.2294	0.4913
북한 동포	-0.8961	0.9799
북한 남성	-0.1128	0.8820
북한 여성	-1.1495	0.9686
북한 소년	0.1365	0.3660
북한 소녀	-0.7136	0.4278
북한 지배층	2.2650	0.3792
북한 피지배층	-1.0167	0.9925

표 4. 성격특성과 각 차원간의 회귀관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차원 1 β	차원 2 β
가정적인	0.02	-0.13
정직한	-0.05	0.13
민감한	-0.07	-0.18
친절한	-0.10	0.02
도움주는	-0.06	-0.07
희생적인	0.04	0.06
이해심있는	-0.31***	-0.03
우호적인	-0.07	-0.08
호감가는	-0.06	-0.01
공격적인	0.19**	0.11
거만한	0.12	-0.10
지배적인	0.35***	-0.03
자신있는	-0.05	0.04
독립적인	0.04	0.17
이기적인	-0.03	-0.13
야심적인	0.19*	0.03
경쟁적인	-0.07	-0.16
과학적인	-0.04	-0.94***
R^2	0.99***	0.87***

주. * $P < .05$, ** $P < .01$, *** $P < .0001$

부적인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원 1은 조사대상 집단의 지배성의 정도를, 차원 2는 과학성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차원 2는 남한과 북한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주는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은 남한 및 남한 내의 하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인 집단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남한의 하위 집단 중에는 남한의 피지배층만이 유일하게 비과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북한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관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한 결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국가로서

북한은 북한의 지배층과 매우 가깝게 지각되었고, 북한 내의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속성이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둘째, 북한 동포는 북한의 피지배층, 소녀 그리고 여성들과 매우 가깝게 지각되었고, 국가로서의 북한이나 북한의 지배층에 비해 지배적인 속성이 약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북한의 성인 남성은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동포에 더 가까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오히려, 북한의 성인 남성보다는 소년이 상대적으로 국가로서의 북한에 좀 더 가깝게 지각되었다. 넷째, 국가로서의 북한이 북한 동포와 상당히 멀게 지각된 반면,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 국민과 상당히 가깝게 지각되었다. 다섯째, 남한의 남성과 소년은 여성과 소녀보다 남한 및 남한 국민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되었다. 여섯째, 남한의 지배층은 남한의 하위 집단 중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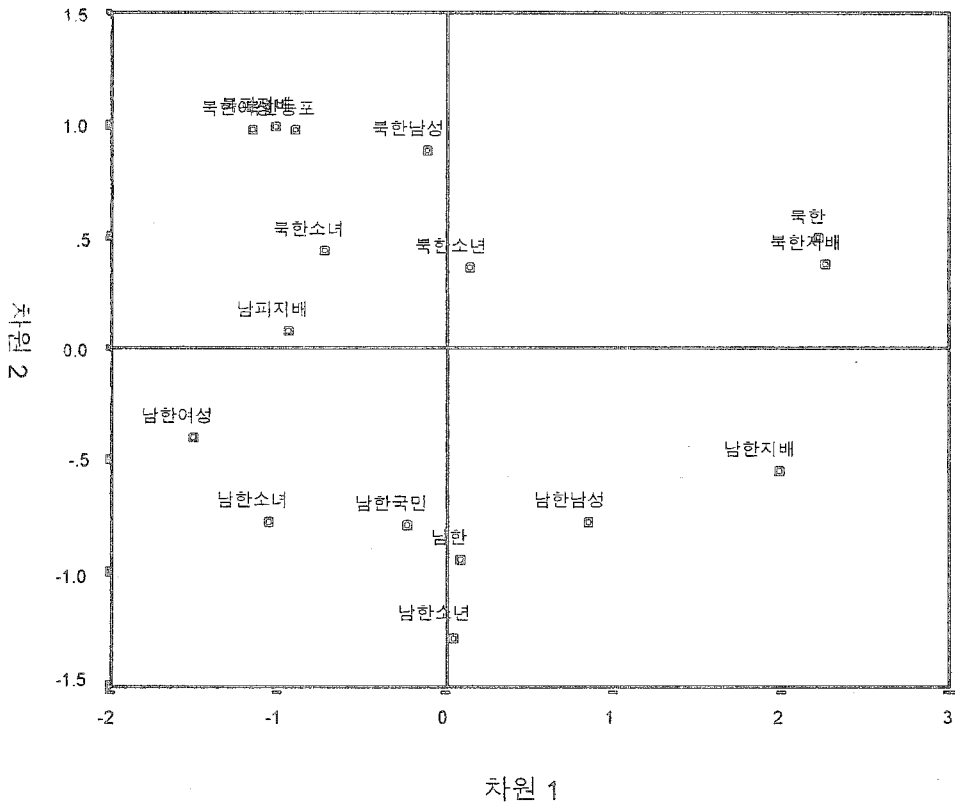


그림 1. 남·북한 및 남·북한 내 하위집단의 2차원 상의 위치

표 5. 남·북한 및 남·북한 내 하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

남 한		남한 지배층		남한 소년		남한 남성	
경쟁적인	3.53	지배적인	4.28	경쟁적인	3.63	지배적인	3.81
이기적인	3.42	이기적인	4.23	이기적인	3.42	경쟁적인	3.81
지배적인	3.40	거만한	4.08	공격적인	3.32	야심적인	3.62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30	경쟁적인	3.98	야심적인	3.28	이기적인	3.56
거만한	3.21	야심적인	3.96	자신있는	3.25	거만한	3.51
우호적인	3.02	공격적인	3.76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12	공격적인	3.42
남한 국민		남한 피지배층		남한 소녀		남한 여성	
경쟁적인	3.65	가정적인	3.58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76	가정적인	4.12
이기적인	3.52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33	가정적인	3.39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72
가정적인	3.44	이기적인	3.16	이기적인	3.37	우호적인	3.34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42	우호적인	3.09	경쟁적인	3.35	이기적인	3.33
거만한	3.18	공격적인	3.06	호감이가는	3.34	희생적인	3.31
야심적인	3.16	경쟁적인	3.02	친절한	3.32	이해심이있는	3.28
북 한		북한 지배층		북한 소년		북한 남성	
공격적인	4.30	지배적인	4.40	공격적인	3.52	공격적인	3.25
지배적인	4.13	공격적인	4.19	야심적인	3.21	지배적인	3.11
야심적인	4.01	거만한	3.98	정직한	3.19	독립적인	2.95
이기적인	3.78	이기적인	3.90	경쟁적인	3.19	이기적인	2.94
독립적인	3.75	야심적인	3.89	자신있는	3.00	정직한	2.92
경쟁적인	3.48	경쟁적인	3.65	독립적인	2.98	경쟁적인	2.92
북한 동포		북한 피지배층		북한 소녀		북한 여성	
가정적인	3.27	가정적인	3.35	정직한	3.20	가정적인	3.57
정직한	3.25	정직한	3.10	가정적인	3.13	희생적인	3.25
희생적인	3.04	희생적인	3.09	호감이가는	3.03	정직한	3.08
호감이가는	2.97	친절한	2.97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3.02	이해심이 있는	3.02
친절한	2.96	호감이가는	2.95	희생적인	3.01	친절한	2.99
우호적인	2.89	우호적인	2.95	친절한	2.94	호감이가는	2.94

주. 점수가 클수록 잘 일치한다고 평가한 것.

성인과 상대적으로 가장 가깝게 지각되었으나 남한 국민을 포함한 남한의 대부분의 하위 집단과 상당히 멀게 지각되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여성 및 소녀와 가까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및 남·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8개의 성격특성 중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각 집단과 잘 일치한다고 평가한 상위 6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과 북한 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북한의 공격적인, 지배적인, 야심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속성이 지배층에도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고 지각하였다. 남성과 소년도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북한동포, 피지배층, 여성, 그리고 소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공통적인 속성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각되었다.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인 가정적인, 정직한, 희생적인 속성이 피지배층, 여성, 그리고 소녀에게도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동포, 피지배층, 여성, 그리고 소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하나도 없었다.

남한의 경우, 지배층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여섯 개의 속성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즉, 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인 지배적인, 이기적인, 거만한,

경쟁적인, 야심적인, 공격적인 특성이 동일하게 남성에게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로서의 남한은 지배층이나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이기적인, 지배적인, 거만한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우호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 국민, 피지배층, 소녀, 그리고 여성은 가정적인,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이기적인 속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지배층과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공통적으로 지배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야심적인, 공격적인, 거만한 특성이 포함되었다.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이 두 집단을 지배성의 정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논 의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과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 거의 동일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동포, 피지배층, 여성, 소녀에 대해서도 매우 유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두 부류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히 달랐다.

국가로서의 북한은 북한의 지배층과 매우 비슷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는 김정일 등과 같은 북한의 지배층에 기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과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공격적인, 지배적인, 야심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등과 같은 주도적인 특성들이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 남성에게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들이었다(Ashmore, Del Boca, & Titus, 1984; Deaux & Lewis, 1983). 또한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

에 대해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외집단은 믿을 수 없고, 남을 속이고,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내집단은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평화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Brewer, 1986; Schopler & Insko, 1992). 따라서,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국가로서의 북한과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독립적인을 제외하고, 공격적인, 지배적인, 야심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등과 같이 부정적인 특성들이었다. 즉,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매우 유사한 특징들이 국가로서의 북한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국가로서의 북한을 김정일 등을 포함하는 북한 지배층에 기초해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지배층은 뉴스 등을 통해서 남한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역할로 지각되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외집단으로 지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동포는 북한의 피지배층, 여성, 그리고 소녀 등과 유사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북한 여성과 소녀 등을 포함하는 피지배층과 동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동포와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가정적인, 정직한, 희생적인, 호감이 가는, 친절함, 우호적인 등과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특성들이었다. 즉, 이전 연구들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들이었다(Ashmore, Del Boca, & Titus, 1984; Deaux & Lewis, 1983). 이러한 성격특성은 내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ewer, 1986; Schopler & Insko, 1992).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북한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 동포를 북한의 피지배층에 기초해서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피지배층은 대중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의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을 국민 또는 민

죽적인 차원에서는 한 핏줄이라는 내집단으로 지각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북한 동포라고 하는 두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남성적인 속성을 지닌 외집단으로,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여성적인 속성을 지닌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북한 및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매우 강한 반면, 북한 동포나 북한의 피지배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이나 지배층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이 부정적인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매우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평균: 3.48 - 4.40). 반면, 북한 동포나 피지배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이 긍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평균: 2.89 - 3.35).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이나 북한 지배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북한 동포나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북한 지배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북한 동포나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통일을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간접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또는 북한 동포가 긍정적인 특성을 매우 많이, 그리고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심리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동포에 대해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통일을 원하는 정도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북한이나 북한 내의 어떤 하위 집단도 긍정적인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 및 북한 내 하위 집단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 대한 고정관념

남한의 경우에는, 지배층과 남성이 비슷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우리가 남한의 지배층을 생각할 때는 남성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들이 지배층 및 남성과 잘 어울린다고 지각한 상위의 성격특성은, 지배적인, 이기적인, 거만한, 경쟁적인, 야심적인, 공격적인 등과 같은 특성들이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매우 유사한 특징들이 남한의 지배층 및 남성과 잘 어울린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지배층을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기초해서 판단했고,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로서의 남한은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슷하게 지각되었지만, 여성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남한과 남성은 경쟁적인, 이기적인, 지배적인, 거만한 등과 같은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 남한과 여성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우호적인, 이기적인 등과 같은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 국민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즉, 조사 대상자들은 남한과 남한 국민은 경쟁적인, 이기적인,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그리고 거만한 등과 같은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의 다양한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자들이 남한의 여러 하위 집단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여성, 소녀 그리고 피지배층이 비슷하게 지각되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에 민감하고 가정적이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남한의 지배층과 남성을 제외하고는 남한 내의 모든 집단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그리고 내집단의 특성과 외집단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북한 고정관념의 비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국가로서의 남한이 남한 내의 다양한 집단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 반면, 국가로서의 북한은 북한 내의 지배층 이외의 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남한의 지배층과 남성을 제외한 남한 내의 하위 집단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그리고 내집단의 특성과 외집단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지배층, 남성, 소년이 주로 남성적이고 외집단적인 특성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북한 동포, 피지배층, 여성, 소녀는 주로 여성적이고 내집단적인 특성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가로서의 북한보다 국가로서의 남한이 더 다양한 하위 집단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남한 내의 하위 집단들은 북한 내의 하위 집단보다 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가능한 이유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자들이 획득할 수 있었던 북한 내의 하위집단에 대한 정보는 남한 내의 하위집단에 대한 정보보다 간접적이었고 동시에 양적으로 상당히 적었던 반면, 남한 내의 하위 집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Eagly & Kite, 1987; Linville, 1982). 그 결과 북한과 북한 내의 하위집단을 남한과 남한 내의 하위 집단에 비해 동질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동포를

전혀 다르게 지각한 반면, 남한의 경우는 남한 국민에 기초해서 국가로서의 남한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로서의 북한과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인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이했던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로서의 남한과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인 남한 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남한과 북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남한 국민'과 '북한 동포'라는 비대칭적인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국민이라는 명칭이 동포라는 명칭보다 국가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남한 국민이 북한과 북한 동포보다 더 유사하게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전 연구들(차재호, 1992; 홍기원, 1999)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 사람'에 대해 부지런하다, 순박하다, 주체성이 강하다,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등과 함께 독재적이다, 배타적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동포'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전 연구와 본 연구간의 차이를 유발시킨 이유중의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포'라는 명칭 사용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포라는 명칭 자체가 내집단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인 특성들로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 있다면,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이하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 시에 한 가지 주의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나라에 따라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한다면 이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1) 아래의 논의는 심사위원님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시에 연구의 목적이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인지 또는 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로서의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북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더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은 북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국가로서의 북한과 더 가깝게 지각되었고, 남한의 남성도 남한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가로서의 남한과 더 가깝게 지각되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국가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Eagly와 Kite(198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Eagly와 Kite(1987)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을 북한 남성보다는 북한 지배층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국가로서의 남한은 남한 남성보다는 남한 국민과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Eagly와 Kite(1987)의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지배층, 피지배층, 국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집단을 본 연구의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의 남성과 지배층을 분리하여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배층에 대한 평가는 김정일 등과 같은 남성들을 기초로 판단하고, 북한 남성에 대한 평가는 이들을 제외한 남성들을 기초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북한의 경우에, 조사 대상자들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북한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지배층 남성들을 지배층 이외의 북한 남성보다 국가로서의 북한과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을 것이다. 한편, 남한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남한의 국민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남한 국민들이 실제로 투표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남한 국민을 지배층이나 남한 남성보다는 국가로서의 남한과 더 가깝게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로서의 북한과 북한 남성간의 거리보다는 국가로서의 남한과 남한 남성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도 남한 남성들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북한의 지배층을 제외한 남성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한의 지배층과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지배적인, 이기적인, 경쟁적인, 야심적인, 공격적인, 거만함과 같은 특징들이 포함되었다.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사 대상자들은 이 두 집단을 지배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인 남한의 경우에도, 지배층은 북한의 지배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6·25를 경험한 세대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과는 남·북한에 대해 상당히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세대차이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이나 남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떠올리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에는 조사 대상자들이 각 집단을 대표한다고 지각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각 집단의 고정관념의 내용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고정관념만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감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포함

한다. 특히, 감정적 요인들은 편견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혜숙, 1999).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인지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성영신(1995). 통일 그 이후: 심리적 갈등과 그 조화. *한국언론학회·중앙일보사 통일 그 이후 심포지엄 논문집*.

심진섭(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 대학생, 실학민,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전우영·이훈구(1996). 집단대표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범위-빈도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69-79.

전우영·이훈구(1997). 비전형적인 구성원과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2), 147-157.

정진경(198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69-184.

정진경(1996). 문화 이해지 - 통일과 심리적 화합.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pp.53-69).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차재호(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학술연구구성비 지원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홍기원(1999).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주요 외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현대사회심리학회연구*(pp. 77-99). 시그마프레스.

Ashmore, R. D., Del Boca, F. K., & Titus, D.(1984, August). *Types of women and men: Yours,*

mine, and ou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Brewer, M. B.(1986). The role of ethnocentrism in intergroup conflict.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88-102). Chicago: Nelson-Hall.

Deaux, K., & Lewis, L. L.(1983). Components of gender stereotypes. *Psychological Documents*, 13, 25. (Ms. No. 2583).

Eagly, A. H. & Kite, M. E.(1987). Are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51-462.

Eagly, A. H. & Steffen, V. J.(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35-754.

Fajardo, D. M.(1985). Author race, essay qual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255-268.

Hoffman, C., & Hurst, N.(1990). Gender stereotypes: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97-208.

Kohr, H.(1995). Psychological problems in the German unification. *한국심리학회 제1차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중앙적성출판사.

Linville, P. W.(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83-211.

Sagar, H. A., & Schofield, J. W.(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Schopler, J., & Insko, C. A.(1992). The discontinuity effect in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relations: Generality and mediation.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Psychology*(Vol.3, pp.121-151). Chichester, UK: Wiley.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Takane, Y., Young, F. W., & deLeeuw, J.(1977).

Nonmetric 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 An alternating least squares method with optimal scaling features. *Psychometrika*, 42, 7-67.

Exploration on Stereotype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Sex Role

Woo-Young Chun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college students' stereotyp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ir subgroups. Subjects perceived North Korea as an out-group which had attributes of men similar to its dominators, whereas perceived North Koreans as an in-group which had attributes of women similar to the ones who are dominated, women, and girls in North Korea. As a results,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subject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However, subjects similarly perceived South Korea and its people. Subjects perceived South Korea as a nation to have similarity to South Korean men, but also perceived it to have attributes of South Korean women. Lastly, subjects perceived that the dominator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are many negative attribute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stereotype research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discussed.